

독일 - 통일

2016-1 가천대학교 독일의 이해 13주



동 독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시대 (1950-61년)

사회주의/공산주의 홍보 및 교육에 총력
- 비터펠트 노선



사회주의 국가 도달 시대 (1961-71년)

경제 위기, 신 경제체제 도입



사회주의 위기의 시대 (1971-1990년)

공산 체제 한계 및 공산 정권 급속한 몰락,
당과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과 저항의 시대

서 독

비판의 시대 (1950년대)

과거 청산? 새로운 위기 핵!



정치적 움직임들의 시대 (1960년대)

경제 번영기, 히피 문화운동, 68학생 혁명



개인의 시대 (1970년대)

실패한 학생 운동 이후, 각자의 삶 속으로!



균형과 완화 만남의 시작 (1980년대)

동서 냉전 체제 와해 시작, 만남과 교류 시작

1970년 두 번의 정상회담(Erfurt, Kassel)

공식적인 교류 시작



1973년 동서독 UN 동시 가입

기존의 동서독간 연락 외에 상호 방문 및 출판, 방송물도 교류
동서독에 상주 대표부 설치, 서독인의 자유로운 동 베를린 여행



1989년 동독 지방 의회 선거 관련 시위/ 헝가리의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헝가리 -> 오스트리아 -> 서독으로의 탈출 행렬



1989년 여름 동독 내 반 정부/체제 시위 물결

동독 정부에 대한 반발 심화/가시화



1989년 가을 각종 시민단체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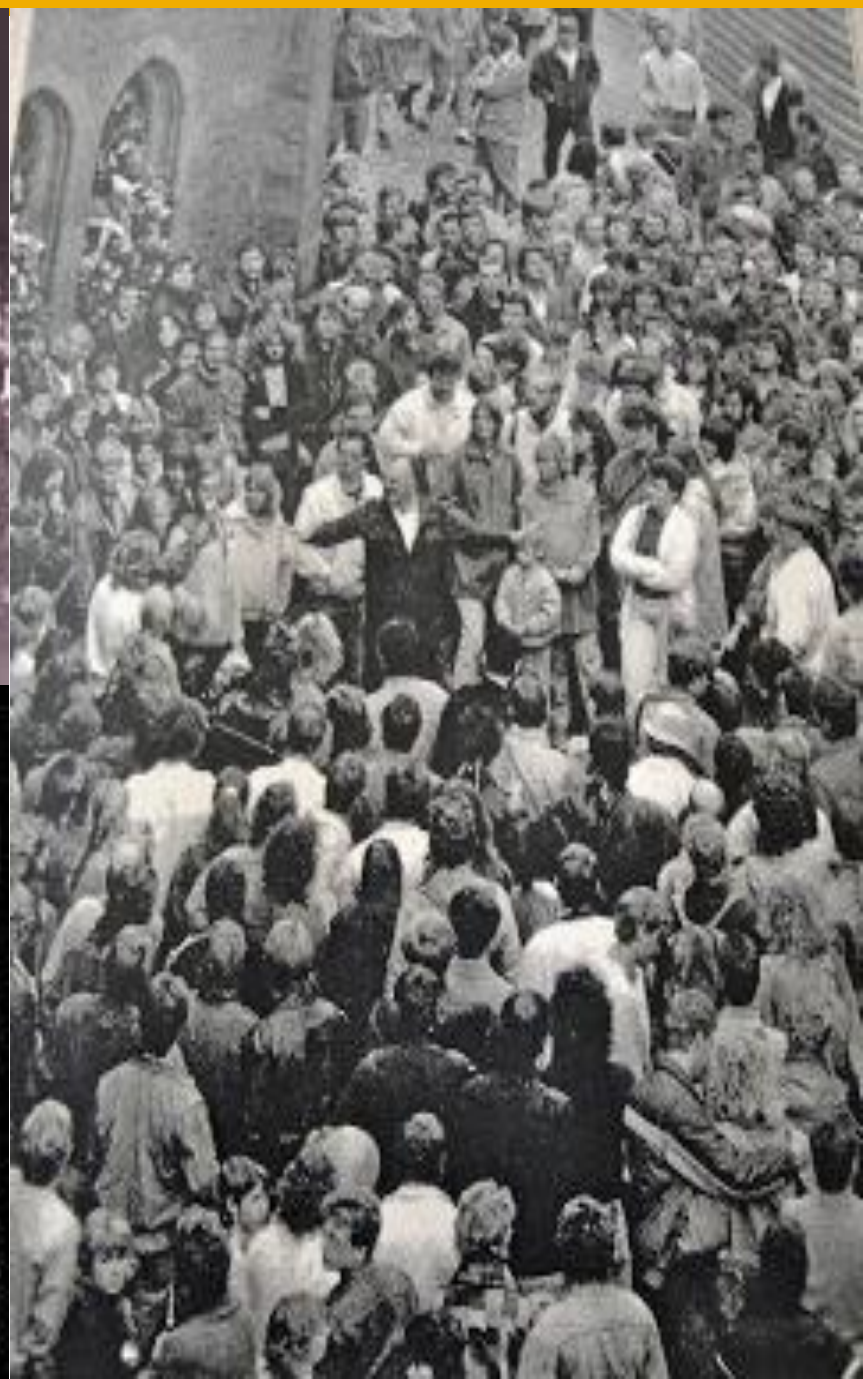
9월(신 포럼), 10월(민주 봉기)



재야 시민 인사 중심으로 반정부 움직임 강화

1989년 9월 이후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정기적인 월요 기도 모임

2. 독일 통일 과정: <성 니콜라이 성당> 집회



2. 독일 통일 과정: <성 니콜라이 성당> 집회





1989년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





1989년 10월 19일 당 서기장 호네커 퇴진

더욱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 (자유선거, 정치개혁, 여행 자유)

1989년 11월 7일

동독 정부 내각 총 사퇴

1989년 11월 9일 저녁 - ‘역사적인’ 기자회견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다”

2. 독일 통일 과정: 베를린 장벽 개방



2. 독일 통일 과정: 베를린 장벽 개방



1989년 11월 9일 밤 베를린 장벽 개방

기자 회견 내용이 당장 당일 저녁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갑작스레 베를린 장벽 경비 초소로 몰려든 인파들, 국경 경비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장벽 개방



1990년 10월 2일 동독 인민 회의 개최

동독 정부 공식 해산, 동독지역 5개 주 서독 연방 주로 편입(서독 기본법 23조)



1990년 10월 3일 0시

독일 통일 선포

3.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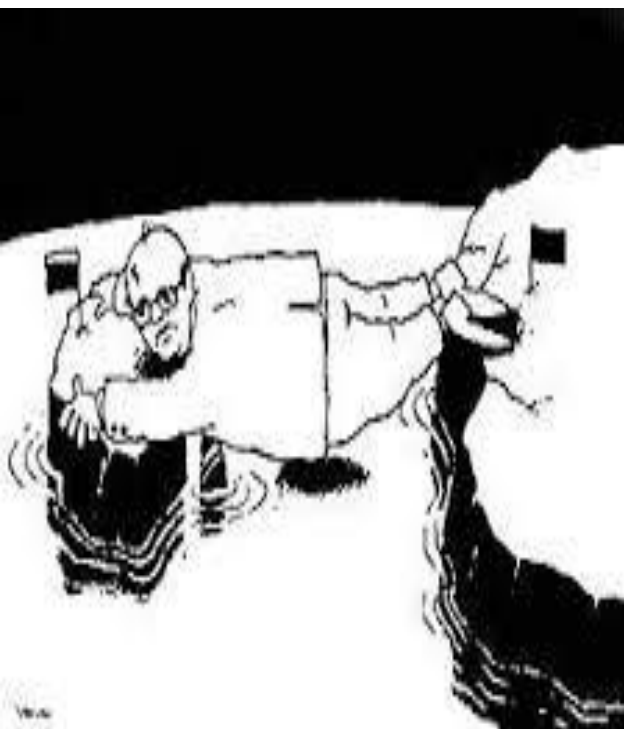
70년대 이후로 꾸준히 동·서독 간에 교류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통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3.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1. 구 동독지역 출신과 구 서독지역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 격차
2. 구 서독지역 보다 높은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 구 서독지역보다 20% 높음
3. 가장 심각한 후유증: 구 동독 출신 국민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열등감

‘제 2등 국민/시민’이라는 열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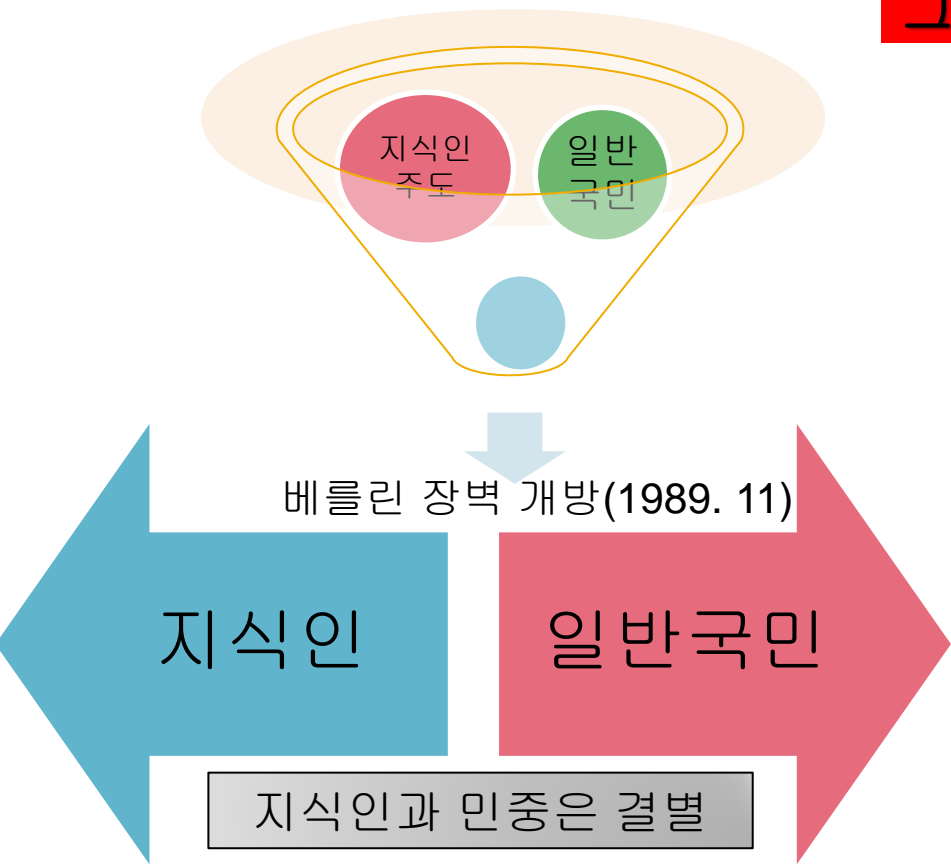


* 통일 과정 속에 드러난 동독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의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

통일에 대한 마음: 구 동독인들이 더 복잡했다

지식인과 민중들:
민주화라는 목적으로 함께 연대!

그러나 처음부터 근본적인 바람이 달랐다!



지식인들: 현실 사회주의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상적이고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동독의 개혁 개방)

일반국민: 이념이나 국가 체제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 추구

1990년 3월 인민의회 총선: 반 정부 시위를 이끈 동독 시민 단체 및 재야 운동가들이 세운 정당인 **새로운 포럼** 등이 총선에서 5%에도 이르지 못하는 지지만 받음

* 통일 과정 속에 드러난 동독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의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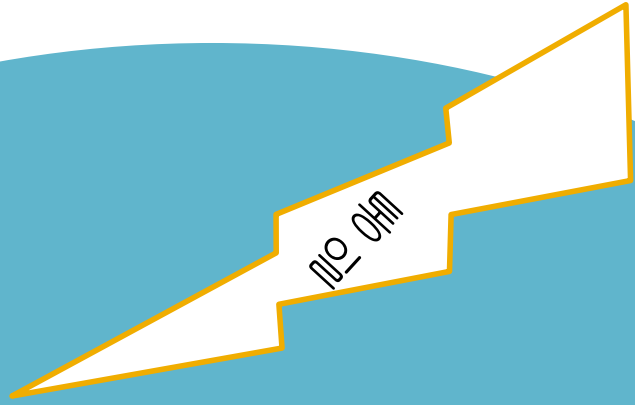
지식인:
동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사라진 이상,
좌절, 체념,
포기

그리고

이어진 악재들

통일 전:
지식인과 민중은
'민주화'로
향해하는 한 배를
탄 동지



서독지역
으로 이주
행렬 증가!

일반인:
이념은 무슨 ...
내 자유와 행복
한 일상 생활이
면 충분해!

4. 독일 통일 후유증 발생 원인들



1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 버린 통일

2

경제 대국 서독으로 가난한 동독이 흡수된 통일

1. 통일이 너무나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통일 이후 국민 통합 과정에 대한 준비가 짧았다!

2. 동독과 서독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각 정부가 가진 대 국민 정당성의 차이로 인하여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형식으로 통일

- 1990년 10월 2일에 동독 인민회의에서 동독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산 동독의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짐
-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 연방주로 편입, 10월 3일 0시에 독일 통일이 공식적으로 선포.
- 이렇게 동독은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서독은 공식 명칭 독일 연방공화국(BRD)도 그대로 사용, 정치, 사회, 경제 체제 모두 기존의 것을 유지
- 구 서독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익히고 적응해야만 했던 구 동독인들에 비하여 통일 이후의 변화를 절실히 체감하지 못함

* 독일 통일 그리고 상처, 더 많이 아픈 자

이렇듯 통일을 대하는 구 동독인과 구 서독인 간의 입장 및 견해, 상황의 차이는 예술 분야 특히 문학 분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일 문제를 다룬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구 동독 출신의 작가들에 의해서 집필되고 있다.

즉 구 동독인들에게 통일이 더 아픈 문제라는 것!

난 그들의 삶을 훔쳤고 그들은 나의 인생을 바꿨다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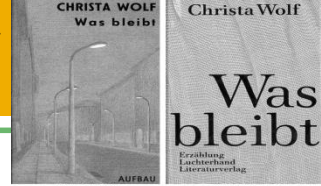
2003

5.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 통일 독일 문학 논쟁 - 구 동독 출신 작가들을 둘러싼 연이은 악재들

독일 문학계는 통일 후유증을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욱 힘들게 앓았다.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테마에 몰두했던 문학이 단기간에 통합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학계 또한 동독의 서독으로 흡수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통합되었는데, 서독의 작가들이 통일 전후 별다른 차이 없이 계속해서 집필활동을 했던 것과 반해 동독 작가들은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겪었다.



5.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 통일 독일 문학 논쟁 - 구 동독 출신 작가들을 악재들



1. 크리스타 볼프 논쟁:

크리스타 볼프가 통일 이전에 탈고한 작품을 베를린 장벽 개방 이후 발표한 소설 <남아있는 것> 때문에 촉발된 논쟁 - 동독 정부에 반하는 내용이 담긴 소설을 왜 동독이 와해된 이후에야 발표한 것인가? 그 때 하지 않고?



2. 신념 미학 논쟁:

동서독의 좌파 지식인들(하인리히 뵐, 귄터 그라스, 발터 엔스 등)이 문학에 도덕적인 면 및 정치적인 기능을 과도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은 미학적으로 크게 가치가 없다!



3. 슈타지 논쟁:

동독 시절 겉으로는 체제 비판적인 운동을 하고, 그러한 글들을 발표하였는데, 통일 후 그들 중 상당수가 슈타지 비밀요원으로 활동하였음이 드러났다.

무엇이 진짜인가?



5. 독일 통일의 후유증 들 – 통일 이후의 구 동독 출신 작가들의 문학 경향

(동독시절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온) 동독 2세대 작가들:
크리스타 볼프, 헬가 궤니히스도르프, 크리스토프 하인, 폴커 브라운 등

-> 연이은 논쟁들을 겪어내며, 지워져 버린/사라져 버린 시간과 그 시간 속 자아에 대한 상실감: 체념, 회한, 우울, 비판 절망의 분위기

(꿈을 대로 꿈은 동독 사회의 폐해부터 보아 온) 동독 3세대 작가들:
토마스 브루시히, 잉고 술체, 야나 헨젤, 마티나 렐린, 볼프강 엥글러 등

->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향수, 깨어져버린 이상에 대한 회한 없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 다양한 시각, 날카로운 비판, 서늘하리만치 차갑고 냉정한 관찰과 서술, 유머

크리스타 볼프 (1929-2011) <메데이아, 악녀를 위한 변명>(1996)
“세월이 흐를 수록 지난 일은 더욱 찬란하게 보이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찬란했던 시절에 매달려 봤자 부질 없는 짓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매달려야 한단 말인가? 메데이아? 그녀와 함께 몰락해야 한단 말인가? 아,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다.”

토마스 브루시히(1964- 현재 구 동베를린 지역 거주) <존넬알레>(1999)
“정말로 일어난 일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은 기억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기억은 지나간 것을 꼭 잡아두기에는 너무나 느긋한 과정이다. 인간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이라고 사칭하는 것의 반대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기억은 끈기있게 과거와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한다. 그 기적 속에서 모든 분노는 사라지고, 날카롭게 잘려진 모든 것들을 노스텔지어의 부드러운 베일이 덮인다. 행복한 사람들은 나쁜 기억력과 풍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5.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소위 존경받던/인기있던 동독 출신의 지식인들/작가들/예술가들도 통일 독일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삶은?
공산권 국가에서 강단에 섰던 대학 강사는 사상 문제로 대학 강단에서 쫓겨나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고, 동독 정부 우주항공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이는 마트 점원이 되기도 하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으니...

Wir sollten uns vereinigen.



Bild © Dung - TeilVereinigung
Tag der Deutschen Einheit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gehört



5.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 네오 나치라 불리는 그들



독일 민족민주당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구 동독 지역

“사실 NPD는 독일의 대중정당들과 비교하면 소수정당에 불과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하원에 입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구 동독 지역의 일부 주의회 선거에서 5% 이상을 획득하며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와 작센주의회에 진출한 상황이다.” (자금난에 대표 사퇴... 독일 극우정당의 말로? [해외리포트] 2007년 회계조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NPD 13.12.31 09:52최종 업데이트 13.12.31 11:21이 오마이 뉴스 최서우(brianc1981))



6. 영화 <굿바이 레닌!>(2003)



굿바이, 레닌 Good bye, Lenin!, 2003 제작

요약 독일 | 코미디, 드라마 | 2003.10.24 개봉 | 12세이상관람가 | 120분

감독 볼프강 베크

출연 다니엘 브뤼, 카트린 사스, 마리아 사이몬, 술판 카마토바

줄거리 엄마를 위한 지상최대의 거짓말이 시작된다...동독의 열혈 공산당원이자 교사인 크리스티아..

동영상 (3건)



포토 (8건)

영화: <굿바이 레닌!>(2003), 감독: 볼프강 베크

1. 동독 최초 우주비행사가 탄생하던 날 시작된 알렉산더 가족의 수난사는 무엇인가?
① 어머니가 쓰러짐 ② 아버지가 서독으로 탈출함 ③ 어머니가 슈타지에 잡혀감 ④ 알렉산더가 퇴학당함
2. 알렉산더가 보기에 아버지가 서독으로 탈출한 후 힘이 남아 돈 어머니가 몰두하지 않은 일은?
① 아이들의 교육 ② 사회주의 실현 ③ 사회운동가로서 인민 생활 개선
④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자들을 도움
3.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왜 쓰러졌는가?
① 동독으로 송환된 아버지를 보고 ② 반체제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아들을 보고 ③ 사회주의 정권의 폭력성과야만성에 놀라서 ④ 국가 훈장 수여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서

6. 영화 <굿바이 레닌!>(2003)

4. 알렉산더의 누나가 취직한 곳은?

- ① 버거킹 ② 코카콜라 ③ 맥도날드 ④ 이케아

5. 장벽이 무너진 이후 구 동독 지역 출신 노인들은 무엇에 대해 가장 분노하였는가?

- ① 서독으로 탈출했던 가족들의 외면 ②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③ 실업자가 된 구 동독인들의 신세
④ 자신들이 굶주림과당의 억압 속에 고통받았던 지난 40년간 서독인들은 경제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렸다는 데 대한 배신감

6. 어린 알렉산더의 우상이었던 동독 최초의 우주비행사 지그문트 얀의 현재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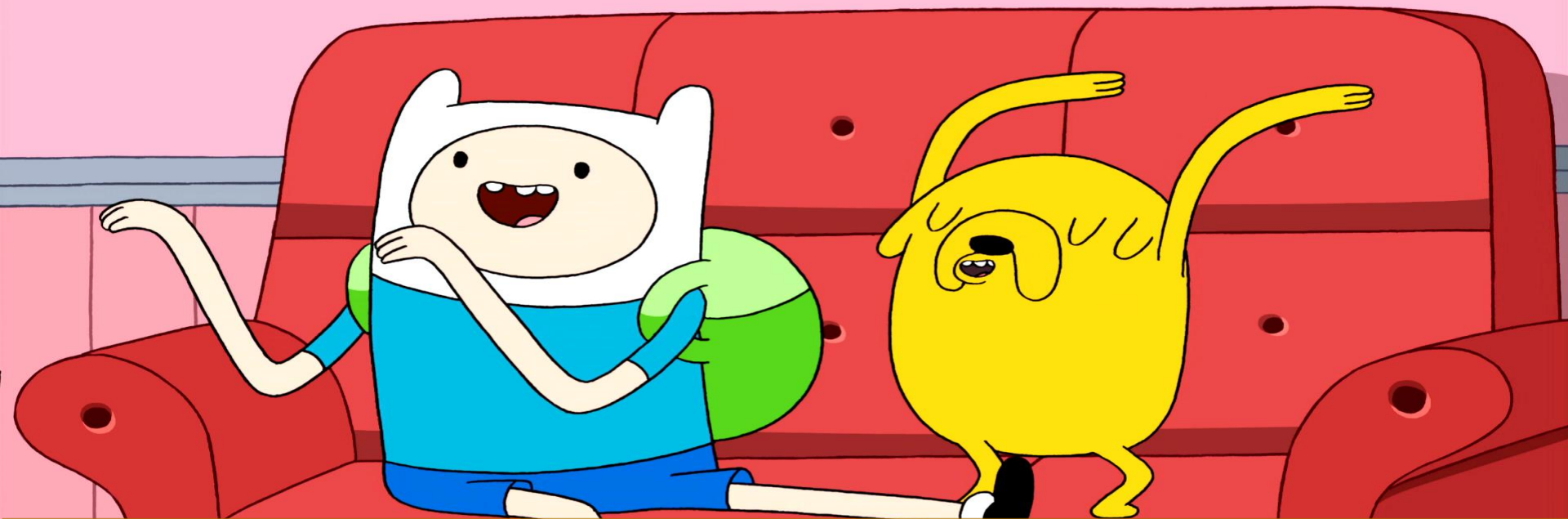
- ① 학교 선생님 ② 주유원 ③ 여전히 우주 비행사 ④ 택시 기사

다음 주 06/06 현충일 수업 없습니다!

4차 토론 입력기간: 06/06-06/11 23:59분까지 토론방!

다 다음 주 06/13 다문화 사회 독일,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2011)

다 다 다음 주 **06/20** 기말고사



수고 하셨습니다!